# 이이남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토크쇼'

## 전북은행 후원 전주 JB문화공간, '제2의 백남준' 미디어 아트 거장 초청… 다양한 주제 소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함께 하는 '작가토크쇼'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이남 작가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전 회화를 현대적 시각과 동시대의 이슈, 대중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기교를 넘어 감상자가 작품 속 이야기와 미감을 깊이 있게 음미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감상자에게 사색과 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1일 '미술의 시간, 거장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크쇼에서 이이남 작가는 최근 개인전으로 주목받은 '울란바토르 비엔날레'를 비롯해 '콜로세움 파사드' 작업, '광주 ACC' 전시 등 주요 작품 활동을 영상으로 축약해 선보였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설치된 병풍 작업 등 대표작에 대한 소개와 비디오 아트와 미디어 아트의 차이점, 영감의 원천, 그리고 향후 작업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토크쇼에 참여한 관객들은 "미디어 아트가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랐다", "웅장한 영상에 음악까지 더해지니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등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겼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함께 하는 '작가토크쇼'를 개최했다.

이이남 작가는 "전주시민의 문화에 대한 열정에 감동했고, 운치 있는 한옥마을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 여러모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십 수 년 만에 찾은 전주에서 작품과 함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기쁘고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박대성 화백과 윤범모 평론가의 토크쇼가 전주 JB문화공간에서 개최된다.

무료 참여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전주 JB문화공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 참가자 모집

## 전주세계소리축제, 7월 2~23일 매주 수요일 하얀양옥집서 공연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2025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와 음악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그 문화적 배경과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세계 음악을 매개로 문화 간 공감과 소통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월드뮤직센터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리축제의 다른 한 축인 '월드뮤직'을 더욱 널리 알리고, 8월에 개최되는 본 축제에 앞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축제를 미리 느껴보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사인 '하얀양옥집(하양집)'에서 열려 한옥들 사이에 있는 풍광 좋은 이층 양옥집의 실내 공간과 세계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함을 느껴볼 수 있다.

공연은 오는 7월 2~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및 사전 예약은 소리축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탭의 사전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으로 30명씩 모집한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2025 세계음악여행 렉처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관객들이 세계 음악과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232-839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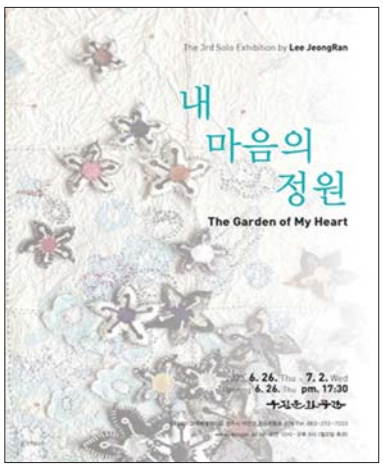
# 우진문화공간, 이정란 작가 개인전 '내 마음의 정원'

우진문화공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정란 작가의 개인전 '내 마음의 정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작가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과 감성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적 경험과 감정의 층위를 섬세하게 풀어냈다.

이 작가는 "작품 활동은 즐거움의 연속이어야 하며, 그 변화는 곧 성장의 과정이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작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무의식적인 반복과 감각적인 수공의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 규방놀이의 기억을 연상케 하는 기법들이 눈길을 끈다.

선을 긋고, 찢고,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꿰매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기법을 넘어, 작가가 기억 속에서 추출한 감정과 정서를 시각적 이미지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또 드로잉과 채색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은 즉흥성과 치밀함이 공존하며, 개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이미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박물관, 11월까지 특별전 개최

### 선조들 다양한 이야기 담긴 간찰 · 일상 생활용품 구성
### 주민과 함께하는 전시회 · 상설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6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모바일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손편지의 소중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실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섹션으로 나눠 흘러가는 계절 속 선조들의 일상, 안부, 유배, 탄생, 전염병, 죽음, 혼례, 과거합격 등 다양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간찰과 일상 생활용품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11월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통해 전주대 평생교육원 소속 지역 작가들의 한지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특별전과 연계해 '찾아가는 박물관', 상설체험인 한지 방향제 만들기, 한지 편지 쓰기 체험, 문화탐방, 진로강연, 학술강연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히 오래된 편지를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지에 스며든 선조들의 삶과 감정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낸 소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0-2159)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포스터

# 전주문화재단, 전통한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전통한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비한 뉴미디어 한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 소재인 한지를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오는 7월 4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평면을 넘어선 한지의 활용 가능성을 미디어아트 콘텐츠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전통 한지가 지닌 질감과 재료적 특성을 현대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창작의 즐거움은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한지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물론, 관련 분야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을 통해 가능하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우리의 전통 한지는 그 쓰임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한지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특별한 현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